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4. 봄(Spring)

내면의 샘에서.....(안셀름 그린 지음)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풍요로운 현대 사회가 제안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곧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 단순한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포기하는 때며, 계속 소비하라는 강요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를 누리는 시기다.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소비한 물건을 즐기는 방식은 잃었다. 소비하면 할수록 누리는 방법은 상실한다. 매스컴의 부추김으로 우리는 한 장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른 장면을 봐야 한다. 많은 장면이 마음을 움직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감정을 일깨우지는 못한다. 사순 시기는 외적 자극을 줄이고 생명의 감각을 강화하는 때다. 그러기에 사순 시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도 치유를 받는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순 시기를 통해 사회의 잘못을 깨닫고 중요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의식이 필요하다. 점점 고조되는 소비 정신을 문제로 삼고 그 대안으로 더욱 효과적인 단순한 삶을 제시하고,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새로운 자의식이 필요하다.



사순절을 지내는 교회는 개인에게만 단식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포기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순 시기를 지내는 동안 단순하게 살고,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긴 많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사회가 만든 소비문화를 문제로 여긴다.
이로써 사순 시기는 오늘날 더 현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개별적으로 단식하는 사람만을 위한 치유 시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치유 시간이 될 수 있다. 사순 시기는 사회에 단순한 삶을 향한 열망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자동차, 담배, 지속적인 구매
등을 포기함으로써 일정한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익힌다.

정신의 광합성

나 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지요.

대기 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삶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 정신의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靈)은 우리의 뜻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가문비나무의 노래 중 (마틴 슐레스케 지음)



예쁜 할머니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접고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프랑스에서 병원 원목 일을 할 때의 체험입니다)



원진숙 말가리다 수녀

어느 날, 한쪽 어깨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할머니 환자를 만났다. 아흔 살쯤 된 분이였다. 지치고 허약한 얼굴 위에 뜻밖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고맙게도 이런 행운이”라고 말하는 나직한 목소리. “행운 이라고요? “ 나는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예,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시켜 주었어요. 참 착한 애예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고맙지요.” 하며 다시 방긋 웃는다. 그 미소가 어찌나 예쁜지, 나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주름살이 많아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하는 큰 발견을 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할머니 입에서 나온 행운이란 말이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딸과 함께 있어서 긴 얘기는 못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그 예쁜 미소를 선사 받았다. 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주 아들딸이나 친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병원 원목 일하면서 항상 보는 것인데, 바로 이 할머니처럼 고마워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절로 알아듣게 된다. 이 말씀을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더 받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라는 뜻으로

어느 날, 모처럼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에 좀 어머신가 보려고 들어갔더니, “오시면 보여 드리려고 애들더러 갖고 오라고 했어요.” 하면서 꽤 두툼한 노트 하나를 내미신다. 할머니가 손수 쓰신 시들이었다. 가족들의 생일, 결혼, 출생, 친구의 장례, 여행의 인상, 휴가 때 묵었던 여관 아줌마의 친절에 대한 감사 등등, 일상의 기쁨과 애환이 소박한 언어로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여 쓴 시로, 젊은 시절부터 엮어 온 사랑과 시련들이 담겨 있었는데, “서로 다른 지붕 아래로 떠나야 했던” 이란 구절이 맘에 걸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자신은 남편과 함께 어느 귀족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야 했었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나직이 말씀하신다. 그 가슴 에이는 장면을 상상하며 나도 목이 맨다.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으셨겠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남편이 전쟁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혼자 새벽 두 세시까지 샅바느질해서 생계를 꾸려간 이야기며, 아이 하나가 심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간호하면서 속을 태웠던 일 등, 온갖 고생 이야기를 조용조용 들려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참 용감하시네요.” 하고 내가 말하자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내 몫을 감당하며 살았지요. 제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었기에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의 눈빛이 빛난다.

“주님이 기적도 하셨어요. 그렇게 병원 한 번 못 가 본 아들이 나왔으니까요.

한 이삼 년은 앓았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해 나와 헤매고 있을 때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 거기 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 데리고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심은 사랑, 심고 키워 꽃피워 놓은 사랑이 바로 기도의 열매라고, 분명 주님이 할머니의 삶 안에 함께 계신 거라고 내가 말하자, 할머니는 “주님께 감사해요.” 하면서 다시 방긋 웃으신다.

할머니를 휠체어로 미사에 모시고 오거나, 너무 힘드셔서 못 오시는 날에는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영해 드리고 함께 기도하곤 한다. 그러면 그 예쁜 미소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아, 이 예쁜 할머니 덕에 이제 늙는 게 걱정이 아니다. 늙어서도 예쁠 수 있으면 이 또한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러나 예쁜 미소가 늙어서 갑자기 찾아올 리가 없으니, 모든 건 지금의 삶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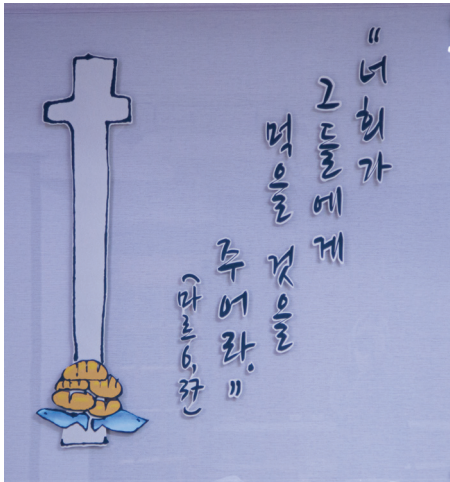


최 수란 레지나 수녀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일 종신서원을 한 최 수란 레지나 수녀입니다. 저의 종신 서원식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축하와 수녀님들, 영적 가족, 친지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선물과 사랑이 담긴 축하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이 종신서원 미사를 통해 제가 정말 수녀님들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느님께 봉헌되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사 전 굳어있던 부모님의 표정이 미사 후에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서원식이 끝난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래 수란 수녀님, 네가 종신서원 한 것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엄마도 수녀님처럼 남들한테 관대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신비,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의 입회를 반대하셔서 수녀원에 오지도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종신 서원식 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제 마음 안에 있던 무거움이 쭉 내려가는 것 같고,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 하느님이 주신 종신서원의 은총, 많은 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동반해 주시며 삶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수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종신서원 성구인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르6,37)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이에게 사랑의 빵 ^^을 제가 파견받은 남미에서 전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후원자분들 한분 한분께 언제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 (재)고려문화재단 (주)모틀초경 (주)버닝하트 (주)중앙금속 TRANANHD 가정동빈첸시오 갤러리 마중 검암동 빈첸시오 검찰사목위원회 골롬반친정집 구로세란의원 디딤돌 2기 마전성당 청라빈첸시오 민들레복지회 밝은미래 부산야음재속회 사랑나무치과 서울대교구이주 세류동성당 신정동예로니모회 아가맘2호 양천애덕회 영적가족8기 운남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당동성당 유은분(세인부동산) 인천석남빈첸시오 인천재속프란 주)가나스틸 창원베트남공동체 평화장터 하늘병원 한국순교성인빈첸
- | | | | | | | | | | | | | |
|----------|----------|----------|-----|----------|-----|-----|-----------|----------|-------|-----|--|--|
| 가좌동 | 강경아 | 강귀희 | 강미현 | 강신연 | 강인숙 | 고승현 | 고승희 | 고희숙 | | | | |
| 구유희 | 권순영 | 권진선 | 금부동 | 금창호 | 김경순 | 김경종 | 김광자 | 김귀선 | 미리암 | | | |
| 김동연 | 김득수 | 김미숙 | 김서애 | 김선옥 | 김성애 | 김성옥 | 김성종 | 김미애 | 자 | | | |
| 김순철 | 김시준 | 김애자 | 김영옥 | 김영자 | 김영준 | 김영춘 | 김옥주 | 김귀선 | 스테파니아 | | | |
| 김용수 | 김용식 | 김용준 | 김원숙 | 김윤옥 | 김윤자 | 김재식 | 김재옥 | 김정숙 | 마리아 | | | |
| 김정웅(김명신) | 김정희 | 김주옥 | 김준희 | 김중호 | 김진금 | 김진옥 | 김춘자 | 루갈다 | | | | |
| 김현숙(최지명) | 김현지 | 김현진 | 김화자 | 김효수 | 김희재 | 나정순 | 남가경 | 노미경 | | | | |
| 노상옥 | 문경애 | 고여숙 | 박서현 | 박성준 | 박성현 | 박수인 | 박연애 | 박은영 | 박인호 | | | |
| 박정순(임현서) | 박준우 | 박찬숙 | 박찬주 | 박해필 | 박향식 | 박헌숙 | 박현애 | 방웅 | | | | |
| 박혜윤(신상빈) | 박혜윤(신유주) | 박화자 | 박희순 | 방정석 | 배수정 | 배운숙 | 배인호 | | | | | |
| 백미자 | 빈창숙 | 서덕순(서득순) | 서유자 | 서춘자 | 서향란 | 석상령 | 소재록 | 손순덕 | | | | |
| 손은경 | 손정례 | 송경수 | 송순이 | 송승운(김영임) | 송정애 | 신동규 | 신아영 | 신용숙 | | | | |
| 신유라 | 신희식 | 안양금 | 양미경 | 양윤석 | 양윤재 | 연희동 | 오복연 | 오소영 | 오숙자 | | | |
| 우상혁 | 원세경 | 유경진 | 유미경 | 유병춘 | 유복희 | 유영재 | 유진희 | 유채영 | 유혜정 | | | |
| 윤미숙 | 윤보미 | 윤선희 | 윤여앵 | 윤정미 | 윤정희 | 윤한희 | 이경재 | 이광진(홍기원) | | | | |
| 이광희 | 이길순 | 이남순 | 이동준 | 이명진 | 이미란 | 이민희 | 이복순 | 이상문 | 이서우 | | | |
| 이선자 | 이성호(조봉례) | 이신자 | 조카 | 이연재 | 이영옥 | 이옥자 | 이용길(현궁주물) | | | | | |
| 이은미 | 이인숙 | 이정숙 | 마리아 | 이정숙 | 수산나 | 이정원 | 이필단 | 이현순 | 이혜미 | 이혜숙 | | |
| 인혜정 | 임정태 | 임혜숙 | 자매회 | 장세옥 | 장영숙 | 장영순 | 장영표 | 장은숙 | 준메디케어 | | | |
| 전순자 | 전은희 | 전제관 | 전주란 | 정강호 | 정미영 | 정미희 | 정성민 | 정숙자 | 정애숙 | | | |
| 정영숙 | 정은일 | 정은희 | 정인순 | 정희 | 조계자 | 조나현 | 조명숙 | 조상위 | 조선희 | | | |
| 조용자 | 조일수 | 조정희 | 조진상 | 안자영 | 조화숙 | 조희공 | 주연아 | 지정희 | 진성자 | | | |
| 진숙인 | 차영자 | 찬미회 | 정신자 | 최갑희 | 최경순 | 최규범 | 최금영 | 최길수 | 최무순 | | | |
| 최숙규 | 최순애 | 최영남 | 최영숙 | 최영애 | 최옥자 | 최일순 | 최미양 | 추기연 | 박진 | | | |
| 추상식(장형숙) | 한기훈 | 한순희 | 한영미 | 허순자 | 허정자 | 홍명숙 | 홍민선 | 홍민희 | | | | |
| 홍승희 | 홍익기 | 황경희 | 황달수 | | | | |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분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아래 은행으로 입금자명(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으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협 100072-51-060834

담당자: 010-2821-8174 수녀원 : 02-852-0939

E-Mail : fmmhelperkor@daum.net

성프란치스코수녀회 2023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77,755,122	사무비	75,887,465
후원금 수입	502,238,814	법인 사업비	22,623,360
		해외선교지원	47,924,597
		새터민	23,246,300
		이주민	75,991,000
		공부방	16,712,000
		기타사회복지	33,909,307
		양성비	96,239,410
		후원자 관리	3,283,400
		이월금	184,177,097
수입합계	579,993,936	지출합계	579,993,936





초대합니다



사별가족 모임 디딤돌

사별 상실은 태풍이나 지진처럼
남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추억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 상 : 사별상실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일 시 : 2024년 4월 17일~6월 5일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수녀원

연락처 : 010-2236-1057 (최남주 베로니카 수녀)

